

## 전방위 테러 대비태세 빈틈없다

해군3함대 헌병대대-화생방지원대

우편물 테러 대비 훈련

‘전방위 완벽 테러 대비태세에 우편물도 예외는 없다!’ 해군3함대사령부 헌병대대와 화생방지원대가 10일 우편물을 이용한 화생방 테러 대비 훈련을 전개했다.

이번 훈련은 전방위 완벽한 테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난 1월 주호주 한국영사관과 지난달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우편물 테러에 대비한 대응력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헌병대대 특임반과 화생방지원대 정찰반 등 전문요원들이 참가했다. 또한 화생방 정찰차와 각종 탐지 장비 및 중형 제독기 등의 장비가 동원됐다.

헌병특임반이 영내 우체국의 의심 우편물 신고를 받으면서 훈련은 시작됐다. 신고가 접수되자 헌병특임반과 화생방지원대 정찰반은 즉시 영내 우체국으로 출동해 의심 우편물을 검색하고, 우편물 보관함과 우체국 사무실을 탐지했다. 이어 우편물에 의한 화생방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대테러 초동조치 훈련을 진행했다.

3함대 안동수(중령) 헌병대대장은 “테러는 함대의 전투력 유지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큰 위협요인인 만큼, 평상시 완벽한 대테러 대비태세 유지를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훈련으로 최고도의 대테러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서욱 육군참모총장,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 수여 서욱(왼쪽) 육군참모총장이 10일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로버트 브라운 대장에게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지난 8일 인도-태평양 육군총장회의(IPACC) 참석을 위해 출국한 서 총장은 오는 15일까지 벨기에, 영국 등을 공식 방문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군의 노력’을 설명하고, 상호 인적교류 확대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육군 제공

## ‘최정예 300전투원’ 주인공 속속 탄생

박격포 육군201특공여단 1특공대대, 견인포 17사단 명포대대 최우수팀 선정

육군 장병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정예 300전투원’(300워리어)의 올해 주인공들이 하나둘 탄생하고 있다. 300워리어는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는 분야별 최강의 전사 300명을 뽑는 제도다.

육군부사관학교는 300워리어 박격포 분야 최우수팀으로 ‘201특공여단 1특공대대 박격포반’을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박격포반 선발은 올해 신설된 분야로 첫 주인공의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경쟁이 특히 치열했다. 선발은 불꽃 튀는 경쟁의 연속이었다.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선발에는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 134명이 참가했다. 평가는 견제유지 참가 원칙을 준수한 가운데 전투체력·전투기량 평가를 통해 구경별 우수한 1개팀(60mm, 80mm, 4.2인치)을 선발하고, 이들 중 사격능력 등 전투수행능력이 가장 뛰어난 1개 팀을 최우수팀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투하중하 10km 급속행군, 조포훈련, 관측, 사격지휘, 사격평가 등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 참가자들은 사격평가에서 희비가 갈렸다. 다른 참가팀보다 신속·정확한 사격능력을 선보인 201특공여단 1특공대대 박격포반에게 최우수팀의 영예가 돌아간 것. 첫 박격포 분야 최우수팀의 영광을 차지한 김진호(상사) 포반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박격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전술적 운용을 다시 한 번 숙달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소감을 밝혔다.

견인포 분야 최우수팀의 주인공도 탄생했다. 육군17사단은 예하 명포대대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육군포병학교에서 진행된 300워리어 선발평



‘육군 최정예 300전투원’ 선발평가에서 박격포 분야 최우수팀으로 선발된 육군201특공여단 1특공대대 박격포반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신설된 박격포 분야 경쟁 치열  
신속 정확한 사격능력으로 영예

간부부터 체력단련 봄 조성 앞장  
철저한 교육훈련으로 자신감 ↑

가에서 ‘견인포 분야 최우수팀’으로 선발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10개 포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투체력을 비롯해 전포·관측·사격지휘 등의 전투기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명포대대 견인포팀’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대대는 우승 비결을 ‘철저한 교육훈련’에서 찾았다. 연초부터 부대는 ‘체력 1급 이상 간부 8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간부들부터 체력단련에 앞장섰다. 자연스럽게 체력증진 ‘봄’이 형성되면서 용사들도 체력단련에 동

참, 전 장병의 기초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특히 견인포팀원들은 일과 후에도 자발적으로 체력을 단련하며 일일 단위 측정을 통해 취약종목에 대한 개인별 맞춤식 훈련을 했다. 그렇게 향상된 체력은 팀원들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고 이는 최정예 전투원 선발의 핵심 동력이 됐다.

명포대대 견인포팀을 이끈 류희현(중사) 포반장은 “대회 2주 전 갑작스런 발목 부상으로 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꾸준한 훈련으로 쌓은 자신감과 팀원들의 응원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전투 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해 육군 최정예 견인포팀의 명성을 이어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현재 20개 분야 중 2개 분야의 선발을 완료한 육군은 올 연말까지 남은 분야에 대한 선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채무 기자



해군3함대 헌병대 특임반 및 화생방지원대 정찰반 장병들이 10일 영내 우체국에서 화생방 테러대비 훈련을 실시하며 의심 우편물을 검색하고 있다. 사진 제공=천세영 하사

## 6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금자탑

공군16전비 약 7년 5개월 걸쳐 기록 달성

공군16전투비행단(16전비)은 10일 기지 내 강당에서 공중전투사령관 주관으로 6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달성 시상식을 거행했다.

16전비는 지난 2011년 12월 6일부터 올해 5월 13일까지 약 7년 5개월에 걸쳐 이번 기록을 수립했다. 특히 기록은 TA-50과 FA-50 항공기를 운용해 이뤄낸 쾌거로 국산 항공기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6전비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통해 사고 없이 영공을 방위하고자 체계적인 정비 및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16전비에 대한 국방부 장관 부대표장, 비행안전 지원대대에 대한 공중전투사령관 부대표장을 비롯해 19명의 개인 표창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국방부 장관 개인표창을 받은 115대대 김영대 소령은 “이번 기록은 선후배 동료 모두의 노력과 땀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현우 기자

■ 편집=남기선 기자